

전남도 대규모 개발계획 연계 SOC사업 재검토

“서해안고속도로 해남·진도까지 연장”

전남도 J프로젝트(서해안관광개발도 시)와 서남해안 개발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SOC(사회간접자본) 수요 요인의 변화에 따라 주요 SOC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남권 개발 등 전남지역 SOC 수요변화가 각종 SOC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SOC 사업이 저비용 고효율을 이룰 수 있도록 일부 도로·철도 등 주요 SOC사업을 지역 대규모 프로젝트에 연계하는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열린 2008년 국고지원 신규사업 관련 보고회에서 이같은 방향 전환을 지시했다. 전남도는 내년도 국고예산을 신청하면서 변화된 SOC 추진과 함께 국고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우선 목포에서 종료되는 서해안고속도로는 J프로젝트 조성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해남을 거쳐 남도 관광의 보고인 진도까지 이어져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7천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과 전남 동부권을 잇는 무안~순천간 중동부권 연결도로(9천976억원)도 원활한 교통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무안공항 개항에 맞춰 호남고속철도를 반드시 공항과 연계해야 양대 SOC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 현재 추진중인 고속철 건설 용역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

무안~순천 중동부권 연결도로 개설 추진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무안공항과 연계

또 보성~임성간 철도공사도 J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해남을 경유해야 전남 서남권과 중동부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별로 특성화된 문화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서남권 개발의 필수 요건인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연도교, 새천년대교(신안 압해~암태), 목포대교(목포 북항~고하도) 등

연륙 연도교의 완공도 시급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 일부는 민자유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확보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와 더불어 전남도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여수 연장(8천억원) ▲나주~목포간 국도 1호선 시설개량(2천78억원) ▲압해~화원간 연결도로 개설(3천500억원) ▲서남해안관광개발도시 진입도로 개설(5천800억원)

등도 새로운 지역개발 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전남도는 새로운 지역개발계획과 연관된 SOC 확충 방안을 포함한 24건의 신규사업을 발굴, 2008년 국고지원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도는 이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9조 8천448억원으로 예상하고 12건은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하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모두 1천156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박준영 전남지사는 25일 지역을 방문하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건의해 국고지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정범석 민주당 광주 남구 지역위원장 취임식이 24일 장상 민주당 대표 등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남구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與 의원 몇명 민주당 올 것”

장상 대표 “신당파 의원들 입당 문의”

장상 민주당 대표는 24일 “전당대회에 예정된 3월 이전에 (열린우리당 의원) 몇 명이 (민주당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공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탈당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분들이 새로 출발해야 할 거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거명을 할 수 없지만 최근 민주당에 직접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제주에 이어 광주에서 기자를 만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바로 민주당에 오기는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제3지대에 협의체를 구성해 민주당으로 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장 대표는 이날 또 “민주당은 정계개편의 한복판에서 모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선장이 분명하면 선장 때문에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중도세력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분명 후보가 나올 것이며 민주당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경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경선 출마에 대한 물음에는 “당 대표 하기도 정신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시도당 격려차 제주를 방문한 장 대표는 기자회견 후 4·3 평화공원을 방문하고 광주로 이동, 정범석 남구지역위원장 취임식과 유종필 대변인의 출관기념회에 참석했다. /박치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왜 당당하게 이름 못 밝히나”

광주·전남 與의원들 ‘입당타진’ 주장 반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열린우리당 호남권 의원들의 민주당 입당 타진’ 주장의 사실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전형적인 구태정치며 언론 플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입당을 타진한 호남권 여당 의원들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이름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런 주장을 내세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또한, “상식적으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은 여당

의원으로는 정치적 자살 행위인데 누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상식 이하의 주장을 내놓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반발했다.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은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열린우리당 광주·전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여당 의원들의 민주당 입당 타진’ 주장을 펼쳤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 발 물러서거나 전면 부인에 나섰다.

민주당 모 의원은 “호남권 여당 의원들의 입당 타진은 일부 와전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동료 의원들에 심려를 끼쳐 유감이다”고 한 발 물러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헌 지지” 이어 盧대통령 신년 연설 비판

박준영 전남지사 잇단 정치적 발언 모종의 ‘속내’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잇따른 정치적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지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3일의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또 지난 10일 광역단체장으로서 맨 처음 개헌 찬성과 정·부통령제 도입을 주장했던 박 지사는 이날도 개헌 찬성 입장을 재확인해 대선 정국을 앞두고 모종의 속내가 있지 않느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박 지사는 이날 “지난 23일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국민들에게 정당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시절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각종 회견과 연설을 직접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같이 평가했다.

박 지사는 “노 대통령 연설에는 ‘PD’가 없었다. DJ 시절 대국민 연설 한 번을 위해서는 국경 분야별로 철저하게 시간 배분을 하고 수차례 예행연습을 했다. 대통령의 한 마디,

표정 하나는 그만큼 무게를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3일 노 대통령의 연설회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로는 미흡했다는 게 박 지사의 총평이다.

박 지사는 개헌과 관련된 소신도 재확인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법선거에다 조합장까지 매년 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국가적 낭비는 물론 농어촌 공동체 파괴마저 불려와 개헌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어 정·부통령제를 도입한다면 권력을 분산해 해묵은 지역감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돈을 높였다. 박 지사의 개헌 발언은 그가 소속된 민주당의 당론과도 배치된다.

박 지사는 현실정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당부하며 오후의 소지를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 나오는 정치적 짙은 이날 박 지사의 발언은 모종의 ‘복선’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국민 이지메 가장 무책임한 연설”

野 3당 盧대통령 신년연설 맹공

한나라당은 24일 노무현 대통령 전담 신년연설에 대해 “빈 수레가 요란했다”, “국민을 이지메한 연설”, “역대 가장 무책임한 연설”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등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에서 “진지한 반성은 전혀 없고 교묘한 자기변명과 고난도의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역대정부와 야당, 대선주자와 언론에 전가하고 심지어 국민을 비하하기까지 했다. 빈 수레가 요란했던 밤이었다”고 비판했다.

김경오 원내대표 역시 “시종일관 실정의 책임을 과거정권과 야당, 언론에 떠넘기며 한 시간 동안 국민을 ‘이지메’하며 괴롭혔다”고 말했다.

니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시간이 없다고 안타까워했지만, 국민은 시간이 아깝다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대통령 원맨쇼의 재방송이 될 내일의 기자회견 생중계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한 노비어천가(盧飛 御天歌)에 불과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정 실패와 민생 파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늘어 놓은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두논평에서 “책임정치와 희망정치로 가득한 신년연설을 기대했던 국민에게는 몹시 실망스러운 내용의 연설이었다”면서 “노 대통령은 떠넘기며 한 시간 동안 국민을 ‘이지메’하며 괴롭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Kwangju - Haeamdo' featuring a golf course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